

설화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를 통해 본 '관계 맺음'의 문제*

조홍윤**

차례

1. 서론
2. 자료 및 서사 개관
3. 서사에 나타난 '남녀 결연'의 의미
 - 3.1. '결연(탄생 → 1차 결연)' : 호명과 응답
 - 3.2. '파국(금기위반)' : '허물'의 거부
 - 3.3. '회복(시련 → 2차 결연)' : 진정한 안목의 발현
4. 남녀 결연의 의미에 비추어 본 보편적 '관계 맺음'의 원리
5. 결론

<논문 개요>

본 연구는 설화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에 내포된 두 가지 층위의 관계 맺음 원리에 대하여 그 설화적 의미를 드러내보고자 하는 의도에 의한 것이다. 여기서 두 층위의 관계 맺음 문제란, 1차적으로 설화의 서사 표면에 배치된 그대로의 남녀 간의 관계 맺음에 대한 것이고, 그러한 1차적 '남-녀'의 관계 맺음에 대한 의미를 2차적으로 '사람-사람'의 관계 맺음 문제로 확장해본 것이다. 이러한 논의 구도는 <구렁덩덩신선비>에 내포된 남녀 결연의 의미가, 궁극적으로 보편적인 차원의 관계 맺음 문제에 대한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서였다. 이에 전체의 서사를 크게 '결연(탄생 → 1차 결연)/ 파국(금기위반)/ 회복(시련 → 2차 결연)'의 순차구조를 지닌 것으로 이해하고, 각각의 국면마다 핵심적인 대립구도를 형성하여 갈등과 사건을 만들어내는 형상들에 대해 상징 분석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의 결과를 그대로 보편적인 관계 맺음의 문제로 재조명하기 위해

* 이 논문은 '2016년 한국구비문학회 춘계학술대회(연세대학교 외솔관, 2016.4.30.)'를 통해 본 연구자가 발표하였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건국대학교

‘관계 맺음 → 관계 위기 → 관계 회복’ 순차구조를 새로이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논의의 결과 드러난 관계 맺음 원리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우리가 관계 대상에게서 가치로운 어떤 것, 존재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대상을 호명하였을 때, 상대는 그에 응답하여 허물을 벗듯이 우리가 발견하고 호명한 그 모습을 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관계 맺음이 이러하기에, 우리는 긍정적인 관계 맺음을 통하여 성숙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어떠한 관계대상도 부정적인 존재성, 허물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자기 면모, 허물의 존재는 그저 관계의 대상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감추어 주고자 한다면 그 관계는 공고해져 더욱 더 상생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나, 그것을 들추어내고 부정하고자 한다면 그 관계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가치에 주목할 것, 상대방의 허물을 감추어줄 것, 이 두 가지야말로 <구령덩덩신선비>에 내포된 관계 맺음의 큰 원리이다.

주제어 : 남녀 결연, 관계 맺음, 신선비, 셋째 딸, 호랑이 눈썹, 탈피, 허물, 신랑 찾기, 안목, 표면, 이면

1. 서론

인간 삶의 수많은 국면들은 ‘관계’를 통하여 율동한다. 태아기로부터 모성과의 관계, 이후로 가족, 친지들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 사회에 합류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이루어진다.¹⁾ 그리고 다시 또래 집단을 거쳐 성인기에 이르러 일정한 사회영역에서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렇게 하여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고 노년

1) 일부의 심리학자들은 태아기~신생아기(0-2개월)의 아기가 관계대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자체 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스피츠(R. A. Spitz)는 신생아에게 자기와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신경생리학적 인지 기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아기가 일종의 무대상(objectless) 단계에서 삶을 시작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 A. Spitz, *The First Year of Life : A Psychoanalytic Study of Normal and Deviant Development of Object Relation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65, N. Gregory Hamilton 저, 김진숙 외 역,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7, 60쪽에서 재인용). 그러나 우리가 관습적으로 행하는 ‘태교’는 태아와 모태의 일체적 밀착 관계를 상정한 것이다. 또한 많은 심리학자들과 의학자들에 의해 모체와의 일체적 밀착 단계가 인정받고 있으며, 그러한 단계의 경험이 인간의 정신 발달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기에 이르러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 삶의 시종은 술한 관계들로 점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인간의 내면적·외면적 삶의 양상에 '관계 맺음'의 문제가 공고히 결합되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관계 맺음의 문제는, 한 인간이 어떠한 일생을 누리게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인간 삶의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실제적 인간 삶의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설화 연구를 희망하는 입장으로서, 그러한 관계 맺음의 문제에 대한 설화적 해법을 찾는 일에 골몰하는 가운데 <구렁덩덩신선비>에 주목하게 된 바이다.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는 주인공인 신선비와 셋째 딸을 중심으로 크게 '결연 - 절연 - 결연'의 순차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서사적 의미를 고찰하는 일은, 아주 기본적인 관계 맺음의 문제,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그 관계가 어떠한 위협을 통하여 파국을 맞고 고통을 안겨주는가.', '그러한 관계는 다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특히 <구렁덩덩신선비>가 한반도 전역에서 구비 전승되었으며, 세계 여러 지역의 여러 민족을 통해 유사 모티프를 지닌 설화들이 전승되었다는 점에서,²⁾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가 지닌 문제의식과 그 해법이 매우 보편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그 서사적 의미를 고찰하는 가운데 인간 삶을 좌우하는 관계 맺음의 문제에 대하여 보편적이고도 원형적인 차원의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당연한 말이지만, 것처럼 주요한 삶의 화두를 품고 있는 <구렁덩덩신선비>에 대하여 그에 주목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리 없다. 다수의 선행 연구를 통하여 매우 다양한 관점으로 <구렁덩덩신선비>가 이야기하는 결연의 문제에 대해 논의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구연자의 구술 특성에 주목 하였던 최래옥의 연구를 시작으로³⁾, 그리스 신화 <에로스와 프시케>와의

2) 아르네 & 톰슨 유형 색인의 '425. 잃어버린 남편을 찾아서(AT 425. The Search for the Lost Husband)'에 해당한다(A. Arne S. Thompson, *The Type of Folktale*, Helsinki: Suomalainen Tiedeakatemia Academia Scientiarum Fennica, 1964).

구조적 유사성에 주목한 입석재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고⁴⁾, 서대석에 의해 신화적 성격을 구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구렁덩덩신선비>에 대한 연구가 물꼬를 텃다.⁵⁾ 이후로 유사 모티프를 지닌 해외 및 국내 설화와의 비교 연구⁶⁾,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여성의 의식화 과정을 통하여 그 서사를 이해하고자 한 연구⁷⁾ 등이 주종을 이루며, 문학적료적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 또한 이루어졌다.⁸⁾ 이처럼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가 함의한 결연의 문제에 대해 이미 다양한 각도의 조명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그 성과 또한 매우 풍부하고도 소중한 것이어서, 새로이 의미를 구명하고 가치로운 성과를 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연구의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바, 본고에서 취하고자 하는 방식은 서사 그 자체에 밀착된 연구이다.

선행연구에서 주종을 이루었던 비교 연구의 경우, 유사 설화와의 비교를

3) 최래옥, 「설화 구술상의 제문제에 대한 고찰 - 蛇郎譚 구렁덩덩신선비의 채록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4권 1호, 한국민속학회, 1971, 67-92쪽.

4) 입석재, 「구렁덩덩 신선비 설화와 큐피드 싸이키 설화와의 대비」, 『한국·일본 설화의 연구』, 인하대학교출판부, 1987, 32-36쪽.

5) 서대석, 「『구렁덩덩 신선비』의 신화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3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6, 172-227쪽.

6) 대표적으로 김환희, 「『구렁덩덩신선비』와 외국 뱀신랑설화의 서사구조와 상징성에 대한 비교문학적 고찰」, 『동화와 번역』 제4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2, 101-123쪽; 김현선, 「<구렁덩덩신선비>와 서세람 섬 <뱀남자>(Der Schlangenmann)의 비교 연구」, 『한국구비문학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경기대학교, 2012, 61-92쪽; 김정은, 「금기를 통한 '신랑 되찾기' 서사의 의미 고찰」, 『겨레어문학』 제47집, 겨레어문학회, 2011, 5-31쪽 등이 있다.

7) 대표적으로 박의숙, 「<구렁덩덩신선비>의 상징성 고찰」, 『국어국문학』 25, 문창어문학회, 1988, 223-234쪽; 신혜진, 「<구렁덩덩신선비>의 상징성 - 여성의식세계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7, 민속학회, 1995, 209-211쪽; 이기대, 「<구렁덩덩신선비>의 심리적 고찰」, 『한국문학과 심리주의』, 우리어문학회, 2001, 311-341쪽 등이 있다.

8) 대표적으로는 서은아, 「<구렁덩덩신선비>를 이용한 부부상담의 가능성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학과교육학회, 2006, 181-212쪽; 조은상, 「<구렁덩덩신선비>의 각편유형과 자기서사와의 관련 양상」, 『겨레어문학』 46, 겨레어문학회, 2001, 291-327쪽; 김정애, 「설화 <구렁덩덩 신선비>를 통해 본 분단서사의 극복 가능성 탐색」, 『통일인문학 논총』 제55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3, 27-53쪽 등이 있다.

통해 <구렁덩덩신선비>의 특질을 드러내는 데 유용하였지만, 아무래도 비교 대상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초점이 놓이게 되는 경향이 있다. 분석심리학적 연구나 문학치료적 연구의 경우에도 서사에 투영된 심층의식을 구명하는 일이나 연구의 성과를 실제로 활용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그 분석이 사용되는 개념이나 프레임에 부합하는 지점들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후행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 경향에 따라 혹은 간과된 부분들이 없는지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하여 ‘순차구조’를 설정하고, 각각의 국면에서 사건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대립가치는 무엇인지를 고찰하여 ‘대립구조’를 설정함으로써, 전체 서사를 충실하고도 치밀하게 조명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갖추하고자 한다. 그에 더하여, 상징의 텍스트인 설화, 그 중에서도 높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구렁덩덩신선비>의 형상들이 지닌 의미를 구명하기 위하여 ‘상징분석’의 방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고의 의도와 같은 맥락으로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 그 자체의 의미를 구명하기 위한 연구들도 선행된 바 있다.⁹⁾ 그 중 주목되는 것은 신연우의 선행연구이다. 그는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를 크게 ‘할머니의 신선비 출산’, ‘셋째 딸과 신선비의 결혼’, ‘신선비의 떠남’, ‘셋째 딸과 신선비의 재결합’의 과정으로 나누고, 이를 통해 ‘탄생-결혼/이별-재결합’의 서사구조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서사국면의 주요한 상징들을 분석함으로써, <구렁덩덩신선비> 그 자체의 서사에 매우 밀착된 분석을 이루어내었다고

9) 대표적으로 노영근, 「『구렁덩덩신선비』 형 민담고」, 『국민어문연구』 8, 국민대학교국어국문학연구회, 2000, 23-66쪽; 이정훈, 「구렁덩덩신선비 이야기의 일상적 영웅성 : ‘허물(벗기)’과 관계성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57집, 국어문화회, 2014, 83-107쪽; 신연우,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의 상징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121-150쪽.

본다. <구렁덩덩신선비>의 전체 서사를 ‘남녀 결연’이라는 화두로써 일맥적으로 파악하고 그 총체적 의미를 규정한 바, <구렁덩덩신선비>에 대한 가장 충실한 작품론이라 할만하다.¹⁰⁾

다만 셋째 딸의 존재를 ‘여성’, 신선비의 존재를 ‘남성’으로 한정하여 논의가 전개됨으로써 ‘남녀의 결연에 관한 여성의 문제’로 그 논의가 국한된 점에서, 본고의 논의를 통해 그 논의가 좀 더 보편적인 차원의 관계 맺음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상식적으로도 남녀관계의 원리는 보다 보편적인 차원의 인간관계 원리와 맞닿아 있음이 분명하다. 또 <구렁덩덩신선비>의 모티프 유형이 범세계적 광포성을 보이며, 민족과 국가를 넘어 전승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서사는 분명 보편적인 관계 맺음의 원리에 맞닿아 있으리라 본다. 그러므로 이야기에 설정된 ‘여성-남성’의 결연문제를 충실히 구명하는 한편, 그에 연결된 ‘인간-인간’의 관계 맺음 원리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¹¹⁾ 이를 통하여 인생의 중요 화두 중 하나인 ‘남녀 결연’의 문제는 물론, 전체적인 인간 삶의 핵심 화두인 ‘관계 맺음’에 대한 깨달음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자료 및 서사 개관

<구렁덩덩신선비>는 『한국구비문학대계』의 ‘611-1 뱀에게 시집간 셋째 딸’ 항목에 총 49편이 수록되어 있다. <구렁덩덩신선비>는 각편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으나 대개 12개의 서사단락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

10) 신연우,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의 상징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학회, 2012, 121-150쪽.

11) 이에 ‘남-녀’의 관계 맺음과 ‘사람-사람’의 관계 맺음을 구분해서 지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남-녀’의 관계 맺음에 대하여는 ‘남녀 결연’, ‘사람-사람’의 관계 맺음에 대하여는 ‘관계 맺음’으로 구분하여 지칭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양자의 구분을 위한 것으로 본고의 논의에 한정된 것이다.

다.¹²⁾ 『한국구비문학대계』 상에서 18편, 『한국구전설화』에 수록된 1편 정도가 그와 같은 12개의 서사단락을 구비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본고의 논의 또한 이들 각편을 중심에 두고 여타의 자료를 참고하여 이루어질 것이다.¹³⁾ 각편의 제목은 <구렁덩덩신선비>, <구렁덩덩소선비>, <구렁덩덩시선부>, <동동시선부>, <구렁선비>, <구렁이를 낳은 할머니>, <뱀서방>, <뱀신랑>, <뱀 신랑과 열녀 부인>, <구렁이 허물 벗은 선비>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많은 수의 각편이 <구렁덩덩신선비>로 명명되어 있는 바, 본고에서도 이를 따른다.

<구렁덩덩신선비>의 12개 서사단락은 다음과 같다.¹⁴⁾

12) “완형과 변이형, 축소형 등이 있지만, 이 설화의 기본 서사 단락은 최래옥과 서대석에 말한 대로 12개로 정리된다(앞의 논문, 126쪽),” 최래옥과 서대석 외에, 이기대·신연우 등도 이 설화의 서사단락을 12개로 상정하고 논의한 바 있다.

13) <구렁덩덩신선비>의 각편 중 12개의 서사단락을 구비하고 있는 자료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오수영 구연, <구렁덩덩신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1-9, 200-205쪽.
- 권은순 구연, <구렁덩덩신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1-9, 453-460쪽.
- 손양분 구연, <구렁이를 낳은 할머니>, 『한국구비문학대계』 4-1, 357-360쪽.
- 박용애 구연, <구렁덩덩소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4-5, 162-165쪽.
- 황필녀 구연, <구렁덩덩소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4-5, 355-362쪽.
- 유조숙 구연, <구렁덩덩신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4-6, 178-188쪽.
- 김계남 구연, <구렁덩덩신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5-3, 466-473쪽.
- 고아지 구연, <구렁덩덩신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5-4, 827-833쪽.
- 김학기 구연, <구렁덩덩시선부>, 『한국구비문학대계』 5-5, 395-397쪽.
- 김판례 구연, <구렁덩덩신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5-7, 174-182쪽.
- 조유란 구연, <뱀서방>, 『한국구비문학대계』 7-6, 578-588쪽.
- 안금옥 구연, <뱀 아들의 결혼>, 『한국구비문학대계』 7-10, 631-640쪽.
- 최순금 구연, <구렁이 허물 벗은 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7-12, 140-144쪽.
- 이남이 구연, <뱀신랑>, 『한국구비문학대계』 8-5, 50-54쪽.
- 김태영 구연, <뱀 신랑과 열녀 부인>, 『한국구비문학대계』 8-7, 638-645쪽.
- 김순이 구연, <동동시선부>, 『한국구비문학대계』 8-9, 999-1006쪽.
- 김수영 구연, <구렁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8-10, 597-606쪽.
- 우두남 구연, <구렁덩덩신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8-13, 558-564쪽.
- 이씨·라씨·이점례 구연, <구렁덩덩시선비>,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7-전라북도I, 평민사, 1990, 289-293쪽.

14) 12개 서사단락은 서대석과 신연우의 예를 참고하여 정리한다(서대석, 앞의 논문, 182쪽;

- (1) 노파가 구렁이를 낳는다.
- (2) 장자덕의 세 딸이 구렁이를 보고, 셋째 딸만이 웃으며 신선비라 말한다.
- (3) 구렁이의 요청으로 셋째 딸과 구렁이가 혼인한다.
- (4) 첫날밤에 구렁이가 허물을 벗고 훌륭한 선비가 된다.
- (5) 색시에게 허물을 잘 간직하도록 당부한 신선비가 과거를 보러 떠난다.
- (6) 색시가 감추어둔 허물을 발견한 언니들이 그것을 태운다.
- (7) 허물이 소실된 것을 인정한 신선비가 색시를 떠난다.
- (8) 색시가 신선비를 찾아 떠난다.
- (9) 여정의 고난이 있다.
- (10) 조력자의 도움을 얻은 색시가 신선비 있는 곳에 간다.
- (11) 색시가 신선비의 새각시와 물길기, 호랑이 눈썹 뽑아 오기 등의 경쟁에서 승리한다.
- (12) 색시와 신선비가 재결합한다.

이와 같이 제시된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를 파악함에 있어 주요한 방법론은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한 상징 의미의 분석이다. 선행의 연구들에서도 <구렁덩덩신선비>의 상징성에 주목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나, 그것이 <구렁덩덩신선비>가 지닌 고유한 의미의 구명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얼마간의 아쉬움이 있다. <구렁덩덩신선비>의 상징적 형상들에 대한 원형 상징 분석이, 많은 경우 융(C. G. Jung)의 의식화 과정을 골자로 이루어져 있는바,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적 맥락을 그대로 따라가기 보다는 의식화 과정의 구도를 따라 서사가 재단되는 양상이 보인다. 그러므로 상징 분석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구렁덩덩신선비>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서사구조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서사구조란 널리 활용된 바 있는 프로프(V. Propp)의 그것은 아니다.¹⁵⁾ 프로프가 제시하는 계열구조·결합구조의 경우, 그 구조의

신연우, 앞의 논문, 127쪽).

15) 블라디미르 프로프, 『민담형태론』, 유영대 옮김, 새문사, 2000, 30-68쪽 참조.

과약이 텍스트 표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지나치게 정형화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 따라서 여러 설화들 간의 계열관계를 논의하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함에 있어서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으나 단일 설화가 지닌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설화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서사구조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맥락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의미의 층위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¹⁶⁾ 이에 서사의 뼈대를 구성하는 도식적인 틀로서의 서사구조가 아닌, 의미의 맥락과 의미요소들의 배치에 주안점을 둔 서사구조의 제시가 필요하다.¹⁷⁾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를 일단 '남녀 결연'의 측면에서 맥락화하여 순차구조를 설정하고, 순차의 각 과정에서 문제시되어 갈등을 일으키는 대립적 의미요소들을 통해 대립구조를 설정한다. 이처럼 기본적인 서사구조의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는 각 국면의 핵심적인 상징들이 형상화하고 있는 의미를 구명하는 방식으로, 고유의 서사에 밀착된 일맥적인 서사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러한 분석을 통하여 심층적인 층위에서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가 이야기하는 남녀 결연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논의가 일상적 '관계 맺음'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구렁덩덩신선비>의 순차구조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신연우의 선행연구를 참조할 만하다. 신연우는 '탄생-결혼/이별-재결합'의 구조를 제시하

16) 신동훈은 설화가 문제 삼고 있는 여러 의미요소들 가운데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가에 따라 설화의 의미를 읽어내는 방향이 달라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설화는 많은 구연자의 담론들이 고도로 적층되는 구비 전승체이므로, 풍부하고도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린 개방적 서사구조를 지니게 됨을 의미한다(신동훈, 『삶을 일깨우는 옛이야기의 힘』, 우리교육, 2012, 208쪽 참조).

17) 프로프 식의 서사구조가 '어떠한 도식적 틀을 갖추었는가'에 관심을 둔다면, 본고에서 말하는 서사구조는 '어떠한 대립적 의미요소들의 배치와 결합을 통해 전체적인 의미를 구조화 하는가'에 관심을 둔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서사구조의 제시를 통해 작품의 서사에 밀착된 심층적 의미 분석이 가능하리라 본다.

였고, 이러한 구조를 통해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가 남녀의 결연과 결연 이후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논하였다.¹⁸⁾ 이러한 순차구조는 <구렁덩덩신선비>의 전체 서사를 망라하여 ‘남녀 결연’ 의미를 드러내기에 알맞은 구조라고 할 수 있으나, 1차 결연과 2차 결연의 분수령이 되는 ‘금기 위반(희물의 소실)’의 문제가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¹⁹⁾ 따라서 ‘금기 위반 → 시련’의 순차를 넣어 ‘탄생(1) → 1차 결연(2)-(4) → 금기 위반(5)-(6) → 시련(7)-(10) → 2차 결연(11)-(12)’의 순차구조로써 이 서사를 이해함이 옳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순차를 의미적 맥락으로 다시 나눈다면, ‘탄생 → 1차 결연’의 순차는 ‘남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연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결연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결연’의 의미가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에 ‘탄생 → 1차 결연’의 순차를 그대로 ‘결연’에 대한 순차로 의미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금기위반’의 순차는 ‘남녀의 관계가 어떻게 하여 파국을 맞게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순차를 ‘파국’으로 의미화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시련 → 2차 결연’의 순차는 ‘파국을 맞은 관계가 어떠한 과정으로 회복되는가.’,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해당 순차를 ‘회복’으로 의미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는 의미적 차원에서 크게 ‘결연 → 파국 → 회복’의 순차를 경유한다고 할 수 있다.

18) 신연우, 앞의 논문, 128쪽.

19) 해당 연구에서 ‘희물 벗기’와 ‘금기’에 대한 의미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다만 본격적인 논의를 앞서 본고의 논의 방법을 설계하는 가운데, 언급되어야 할 서사적 국면으로서 해당 순차가 포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다.

○ '남녀 결연'의 문제에 대한 순차구조

탄생 → 1차 결연 → 금기위반 → 시련 → 2차 결연

결연 / 파국 / 회복

이로써 <구렁덩덩신선비>의 대략적인 순차구조가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그러한 순차구조에 맞물린 대립구조를 분석하고, 각 국면의 핵심적인 상징들을 조명함으로써 전체적인 서사를 통해 안배되어 있는 남녀 결연과 관계 맺음의 문제에 대하여 그 심층적 의미를 드러내 보도록 한다.

3. 서사에 나타난 '남녀 결연'의 의미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에 대한 본고의 서사구조 분석은 그 서사가 이루는 순차구조에서 사건의 핵을 이루는 대립구조를 구명해가며 전체적인 서사의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설화의 상징성이다.²⁰⁾ 설화는 여러 상징을 통하여 그 의미를 형상화한다. 따라서 설화의 서사가 함의하는 본의에 충분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을 말하기 위한 장치인 상징적 형상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특히 <구렁덩덩신선비>는 이야기의 첫 장면에서부터 일상적 현실과 동떨어진 형상들을 배치함으로써 고도의 상징성을 띠고 있다. “노파가 알을 주워 먹고 임신하여 구렁이를 낳았다.”²¹⁾ 라든가, “샘물을 마신 노파가 임신하여 구렁이를 낳았

20) “흔히, 작품은 ‘보이는 세계’로써 독자들에게 함축된 상징적 의미를 제시하는 것을 본령으로 삼고 있다. 설화도 ‘현실과 비현실의 습합체’로써 상징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비현실’이 지니고 있는 본래적 의미를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설화의 상징적 의미가 온당하게 해명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신혜진, 앞의 논문, 204쪽).”

21) “썩을 뜯어다가 인저 가피떡 장사를 하는데, 인저 썩이 이렇게 수북하더래요. 그래서 이 걸 뜯으니까 이거만한 알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 이거 무슨 꿩 알인가 보다.’ 이라

다.”²²⁾ 라고 표현되는 신선비의 탄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일상적 감각을 통해서는 파악되기 어려운 비일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일상적 형상들은 <구렁덩덩신선비> 서사의 시종에 배치되어 상식적인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징, 비일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일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구명함으로써 <구렁덩덩신선비> 서사의 본의에 다다를 수 있으리라 본다. 이에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순차구조에 따라 작품을 살펴보고, 각 순차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대립구조를 드러내고, 그에 관련한 상징들을 분석해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3.1. ‘결연(탄생 → 1차 결연)’ : 호명과 응답

신선비의 탄생 과정에서 무엇보다 문제적인 것은 “노파가 구렁이를 낳았다.” 하는 것이다. 기존의 논의 중에서는 노파가 임신하는 과정에 주목한 경우도 있지만,²³⁾ 실제로 임신의 과정 그 자체는 여러 각편을 통하여 각기 다른 과정이 이야기되거나 언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에 반해 노파가 구렁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모든 각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에 노파의 구렁이 출산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 깊이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노파의 구렁이 출산은 이중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로 난임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하였다는 것, 둘째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인간이 아닌 구렁이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핵심적인

구선 그걸 주워다 먹었대유. 그런데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서 낳는데, 진짜 구렁이를 낳더래유.”, 오수영 구연, <구렁덩덩신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1-9, 200쪽.

22) “노인이 발을 메려 산골짜기로 간게 목이 마랍드래라우. 그서 인자 물을 가서 먹은 것이 얘기를 뵈던가 아 인제 난 것이 구렁이를 낳드라우.”, 김판례 구연, <구렁덩덩신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5-7, 174쪽.

23) 신혜진, 앞의 논문, 206-207쪽 참조.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인 노파의 존재와 아들인 구렁이의 존재이다. 두 존재는 각각 자신의 존재성과 어울리지 않는 역할에 배치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 그 자체로 대립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 '탄생' 과정에 배치된 대립구조

어머니 : 노파

아들 : 구렁이

노파가 출산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어왔다. 억눌린 여성의 성적 무의식이 상징화되어 표출된 것으로 보고, 부정적 여성성과의 결합단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²⁴⁾ 혹은 신선비라는 남성이 자연을 상징하는 '큰 어머니', 즉 '할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이 자연 그대로의 남성이 문화적 순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한다.²⁵⁾ 노파의 존재를 부정적 여성성과의 결합으로 보았을 때에도, 또 신선비가 자연 그대로의 남성성만을 지니고 있는 상황으로 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본다. 결국 구렁이 상태인 신선비에게 새로운 여성과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한 남녀결연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노파'의 형상인 것이다. '어머니'는 잉태와 출산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임'의 존재이자,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존재로서 '생명'과 관련한 의미를 내포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존재가 '노파', '난임'의 존재이자 '죽음'에 가까운 형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노파의 어머니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거나, 노파의 어머니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본다.

24) 박의숙, 앞의 논문, 225쪽; 신혜진, 앞의 논문, 208-209쪽.

25) 신연우, 앞의 논문, 130쪽.

○ ‘노파 어머니’의 상징

「역할 - 어머니 - 가임 - 생명
 대립 = 어머니 역할의 한계 → 새로운 여성과의 결연 필요
 [형상 - 노파 - 난임 - 죽음

따라서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남녀 결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 속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구렁이가 강하게 혼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황도, 어머니(노파)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여성(셋째 딸)과의 결연이 필요한 상황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신선비에게 새로운 여성과의 결연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는 신선비의 구렁이 형상과 관련한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구렁이인 신선비의 모습에 대해, ‘순치되지 않은 자연적 남성성’²⁶⁾,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한 동물적 남성상’²⁷⁾, ‘여성의 부정적 아니무스’²⁸⁾,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²⁹⁾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체적으로 ‘성’, ‘남성’과 관계된 상징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뱀의 형상이 남근의 상징으로 이해되는 경향성이 반영된 것이다.³⁰⁾ 그러한 해석들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구렁이인 신선비의 상태’를 그 자신의 존재성을 설명하기 위한 형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서사적 맥락을 고려하는 가운데, 보편적인 인간 그 자체의 일면에 대한 상징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도 용이할 것이다.

<구렁덩덩신선비>의 핵심 화소에도 포함되었듯, 뱀은 때때로 허물을 벗고 그 존재적 도약을 이루는 생명체이다. 이러한 점은 허물을 벗고 미남자

26) 신연우, 앞의 논문, 129쪽.
 27) 신해진, 앞의 논문, 209쪽.
 28) 박의숙, 앞의 논문, 234쪽.
 29) 이기대, 앞의 논문, 326-329쪽.
 30) J. C. 쿠퍼, 『세계문화상징사전』, 이윤기 옮김, 까치, 1994, 354쪽.

로의 변모를 이루어낸 신선비의 존재적 도약과도 일맥상통한다.³¹⁾ 그렇다면 신선비가 뱀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존재적 도약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지만, 미성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존재성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²⁾ 신선비는 색시와의 혼인을 통해 허물을 벗고, 말 그대로 존재적 도약을 이루어낸다. 이는 미성숙의 존재였던 인간이 결연을 통해 내포되어 있던 존재적 가능성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신선비가 셋째 딸과의 결연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면, 그는 한계적 부모인 노파에 예속되어, 태어난 그대로의 존재성만을 지닌 뱀의 모습, 존재적 도약의 가능성을 지닌 미성숙자의 모습으로 남아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 '구렁이인 아들'의 상징

「 아들 - 인간 - 성숙 - 결연 성공 - 존재적 도약의 가능성	
대립	= 존재적 도약을 위한 결연의 필요성
「 구렁이 - 짐승 - 미성숙 - 결연 실패 - 현상적 존재성 유지	

이는 우리 평범한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부모로부터의 결연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자녀'로서 존재하는 우리는, 부모와는 다른 자신만의 존재적 가능성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 '뱀'의 단계, '존재적 도약의 가능성을 내포한 미성숙의 단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한계(노파인 어머니)에 직면한 남녀가 결연을 통해 독립을 이루고, 자신만의 온전한 존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어야만 존재적 도약(구렁이에서 인간으로의 변모)을 이룰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 신선비가 보여주는 뱀의 형상일 것이다.

31) 구렁이였던 신선비가 허물을 벗고 미남자로 변모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맥락으로 논의 된 바 있다.

32) 뱀의 형상을 '미분화한 생명력의 용출', '잠재적 활력' 등으로 이해하는 것(J. C. 쿠퍼 저, 이윤기 역, 앞의 책, 356쪽)도 마찬가지로 그 존재적 도약의 가능성에 의미를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신선비의 탄생과정 서사에 배치되어있는 상징들은, 탄생 그 자체의 의미를 상징한다기보다, 남녀의 결연을 통한 존재적 도약, 2차적 탄생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노파인 어머니의 상징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한계를 의미하며, 구렁이로 태어난 신선비의 형상은, 남녀의 결연을 통한 성숙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남녀의 결연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그에 대한 의미는 ‘결연’의 과정, (2)-(4)의 서사단락에 해당하는 내용을 통해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서사의 핵심적인 문제는 장자택의 세 딸 중 셋째만이 구렁이를 자신의 신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하여 셋째에게 장가든 구렁이가 허물을 벗고 미남자로 변모한다는 것이다. 셋째 딸에게 장가든 구렁이가 허물을 벗는 맥락에 대해서는, 구렁이로 태어난 신선비의 형상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구명되었다고 본다. 구렁이라는 표면적 형상의 이면에는 미남자라는 존재적 가능성이 숨어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결연’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대립구도를 이루는 것은 신선비의 표면에 나타난 구렁이의 모습과 이면에 존재하는 미남자로서의 존재적 가능성, 그에 대한 장자택 세 딸들의 반응이다.

○ ‘결연’ 과정에 배치된 대립구조

신선비(표면 : 이면 / 구렁이 : 미남자 / 미성숙 : 성숙 / 현상적 존재성 : 존재적 가능성)

세 딸의 반응(두 언니 : 셋째 딸)

장자의 세 딸 중에서도 셋째 딸만 구렁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웃의 노파가 구렁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첫째와 둘째 딸은 구렁이의 모습을 보고 혐오의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셋째 딸은 ‘구렁덩덩 신선비를 낳았네’³³⁾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

33) “아이, 저기 뱀을 낳는데 구경하려면 두지 안에 가 보라고 해서 가 보니까 ”아이 할머니

것이 계기가 되어 신선비는 셋째 딸에게 장가들기를 원하게 되고, 둘의 혼인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남다르게 반응하는 셋째 딸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셋째 딸에게 구렁이의 안에 감추어진 진면목을 보는 안목이 있었던 것'이라 보았다.³⁴⁾ 신선비의 구렁이 형상이 존재적 도약의 가능성을 내포한 미성숙의 형상이라고 보았던 바, 구렁이의 모습을 한 신선비에게서 셋째 딸이 발견한 것이 그 존재적 도약의 가능성이었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지적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셋째 딸이 아닌 두 언니들의 존재를 그저 안목이 없는 주변인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렇게 상관없는 타인, 혹은 주인공인 셋째 딸의 비범성을 보여주기 위한 주변적 인물 설정으로 치부하기에는 둘의 행위가 서사전체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평범하지 않다. 셋째 딸이 신선비로부터 부여받은 금기, “허물을 잘 간직하라.” 라는 금기의 위반은 실질적으로 두 언니에 의해서 일어나며, 셋째 딸 스스로는 금기 위반의 의도도 위반을 위한 자발적인 행위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왜 셋째 딸은 마치 스스로 금기를 위반한 것처럼 그에 의한 시련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의 답은 두 언니의 존재를 셋째 딸의 존재와 동일시 할 때 쉽게 찾을 수 있을 듯하다.³⁵⁾

구렁덩덩 신선비를 나섰구만유.“ 그러더래유, 오수영 구연, <구렁덩덩신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1-9, 201쪽.

34) “막내딸은 신선비의 진정한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러므로 그를 얻을 자격이 생긴다.”, 신동훈, 앞의 책, 215쪽.

35) 이러한 시각은 기존의 논의를 통해서도 제시된 바 있다. 신혜진은 세 딸의 관계를 하나의 인격을 구성하는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로 보았는데, 판단을 통해 신선비의 가능성을 발견한 셋째 딸을 ‘의식’, 신선비에게 본능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는 두 언니의 존재를 ‘무의식’의 상징으로 이해한다. 이때 하나인 셋째 딸이 의식을 상징하고 둘인 언니들이 무의식을 상징하는 것은, 한 개체의 전체 인격에서 극히 작은 영역을 차지하는 의식과, 상대적으로 큰 영역을 차지하는 무의식의 관계를 상징한다고 본다(신혜진, 앞의 논문, 211-213쪽). 이러한 논의를 통해 언니들의 행위가 셋째의 죄과로 여겨지는 서사적 상황을 이해할 실마리가 제공되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색시의 내적 갈등이 과연 의식과 무의식의 갈등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된다. 판단하기로 신선비에 대한 색시의 내적 갈등은 매우 의식적인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베텔하임(Bruno Bettelheim)은, 이야기 속의 인물 형상이 인간 내면의 혼돈스러운 관념들을 정립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분열된 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그러한 분열상은 주로 대립적인 행보를 보이는 형제관계나 오누이의 설정을 통해 나타난다고 본다.³⁶⁾ 이와 같이 일정 부분 존재성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들의 형상으로 한 인물의 분열된 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구렁덩덩신선비>에 등장하는 셋째 딸과 두 언니의 관계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구렁이인 신선비를 징그럽다 말하고, 그 허물을 용납하지 못해 불에 태우는 두 언니의 형상은, 신선비의 이면에 감추어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받아들였음에도, 구렁이로서의 허물, 신선비의 표면적 모습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적 갈등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서사 내적 근거를 통해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각편에서 신선비의 허물을 불태운 두 언니의 존재가, 그 이후의 서사에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두 언니가 징치되었다는 후일담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의 경우일 뿐, 대부분의 각편에서는 마치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존재가 소거된다. 이처럼 서사 초반에는 매우 의미 있는 볼륨을 차지하고 있던 언니들이, 허물의 소실 이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마는 상황 자체가, 두 언니의 형상이 셋째 딸의 내면적 분열상임을 반증한다. 허물의 소실에 이은 신선비와의 결별이 강한 충격으로 작용함으로써 셋째 딸의 내면적 분열상들이 통합되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세 딸'의 상징

「두 언니 - 혐오 - 신선비의 표면에 주목
 대립 = 신선비에 대한 색시의 내적 갈등
 「셋째 딸 - 호응 - 신선비의 이면에 주목

36) 브루노 베텔하임, 『옛이야기의 매력』 1, 김옥순·주옥 옮김, 시공주니어, 122-133쪽 참조.

여기에서 신선비의 구렁이 형상이 지닌 하나의 의미를 더 발견할 수 있다. 신선비 개인에게 있어서 구렁이의 형상은 존재적 도약의 가능성을 내포한 미성숙의 상징이겠으나, 결연 당사자인 색시에게 있어서 구렁이의 형상은 낯선 대상과 처음 관계 맺는 주체가 겪게 되는 '불신', '미지'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상징하는 것이다.³⁷⁾ 낯선 이성과 대면하는 일은 일정한 경계심과 의혹을 동반하며, 상대에 따라 공포와 혐오를 유발하기도 한다.³⁸⁾ 그러나 그러한 불편한 감정들의 홍수 속에서도, 상대방의 존재에서 일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상대와의 결연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결연의 상황에서 양자가 발견한 서로의 가치를 긍정할 때에, 각각은 자신에게서 상대가 발견한 가치로운 면모를 더욱 드러내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취한다. 결연을 통한 성숙과 발전, 그야말로 신선비의 '허물 벗기'가 보여주는 남녀 결연의 원리이다.

색시는 신선비의 표면적 모습, 구렁이의 모습에 대해 불신과 혐오를 느끼면서도 그의 이면에서 존재적 도약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가치에 따라 그를 '구렁덩덩 신선비'라 호명한다. 그러한 호명에 응답하여 신선비는 색시에게 청혼한다. 이는 "당신이 나를 신선비라 불러준다면, 나는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신선비가 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에 색시는 자신이 발견한 가능성을 긍정하고, 자신의 호명에 응답한 신선비를 관계의 대상으로 받아들인다. 그에 따라 신선비는 색시가 발견한 그 가능성을 최고조로 발휘하여 '허물 벗기', 즉 존재적 도약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렁덩덩신선비>의 결연 과정은 우리의 상생적 결연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러한 결연의 구체적인 과정까지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37) '뱀'의 상징이 지닌 다양한 의미 가운데 '불신', '혐오', '공포' 등이 열거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상정사전편찬위원회, 『상정사전』, 동아출판사, 1990, 326쪽).

38) 신선비의 뱀 형상을 '색시의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보았던 이기대의 논의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이기대, 앞의 논문, 326-329쪽).

있다. 부모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단계에서 남녀 결연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뱀의 허물이라는 미성숙의 껍질을 벗고 진정한 자기 존재적 가능성을 발현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다면 결연 이전의 미성숙한 남녀, 각각 뱀의 허물을 뒤집어 쓴 듯 불신과·의혹·혐오·공포를 일으키는 존재들이 어떻게 결연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그러한 불편한 감정을 유발하는 상대방의 이면에 감추어진 존재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발견한 그 가능성에 따라 상대를 호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서로가 발견한 가치로 상대를 호명하고, 그에 응답하여 미성숙의 허물을 벗어내는 발전적 남녀 결연, 이에 대한 인식이 신선비와 색시의 결연과 ‘허물 벗기’의 상징을 통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문제는 남아있다. 허물을 벗고 존재적 도약을 이루어낸다 해도 허물은 남아있다는 것, 여기에서부터 색시와 신선비의 결연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3.2. ‘파국(금기위반)’ : ‘허물’의 거부

어떠한 부부도 서로가 상대방의 요구에 완전하게 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생적인 남녀 결연의 이후에도 ‘허물’은 남게 된다. 이때의 허물이란 상대방을 만나기 이전까지 살아온 자신의 행적일 수도 있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없는 조건 등, 도저히 변화할 수 없는 자신의 존재성을 의미할 수 있다.³⁹⁾ 그렇다면 그러한 허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방법

39) <구령당신선비>의 서사에서 ‘신선비의 허물’은 ‘상생적 관계 맺음을 통해 성숙을 이루는 과정에서 벗어내려야 할 미성숙의 존재태’를 상징하는 동시에, ‘존재적 가능성의 발현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도저히 변화할 수 없는 존재성’을 나타낸다. 후자의 의미는 우리의 실제적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허물’의 개념과도 맥을 같이한다. 양자의 의미는 어느 정도 교집합을 이루고 있으나 상충하는 면도 있다. 이처럼 상징과 실제의 차원에서 중의적 의미를 지니는 ‘허물’에 대하여 구분이 필요하리라 본다. 따라서 ‘미성숙의 존재태’라는 상징적 의미의 허물은 ‘신선비의 탈각’ 이전의 서사에, 실제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변화할 수 없는 존재성’으로서의 허물은 탈각이 이루어진 후의 서사에 유효한 의미를 밝혀준다.

은 오직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뿐이다. 지나온 과거는 없는 것이 될 수 없고, 본질적으로 변할 수 없는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통을 자청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에게 남은 허물이 정말로 없애거나 변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오직 상대방에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도록 그 처분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허물을 맡은 이는 어떠한가. '과국' 순차의 서사에 나타난 금기 위반의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상대방의 허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감추어줄 것인가, 부정하고 태워 없애 버릴 것인가의 문제가 해당 순차의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과국(금기위반)' 과정에 배치된 대립구조

허물의 인정 : 허물의 거부

색시는 신선비로부터 허물을 받아 저고리동정에 감추거나, 거드랑이에 주머니를 매달아 숨기기도 한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낸 신선비의 남은 허물, 부정적인 면모들을 그의 존재성으로 받아들여 가슴에 품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그 허물을 감추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색시가 그의 허물을 받아들이고 감추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로 했기에, 신선비는 과거를 보러 갈 마음을 먹는다. 자신의 부정적인 면모를 인정하고 감추어주는 상대방이 있기에, 그는 보다 발전적으로 자신의 긍정적인 면모를 더욱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두 언니에 의해 허물은 발견되고, 그것은 '징그러운 것'으로 치부되어 불태워진다. 앞서 두 언니의 상징을 신선비의 표면에 드리워진 허물에 주목하여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면의 분열상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두 언니에 의해 허물이 목격된다는 것은, 신선비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주목하고 그를 받아들였던 색시가, 그의 허물-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선비의 부정적

면모-을 인정하고 감추어주기로 했던 색시가, 애초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꾸 신선비의 부정적인 모습, 허물에 주목하게 되는 상황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겨드랑이에 주머니를 달고 그 속에 허물을 넣어두었으나, 그것은 저고리 밑단으로 자꾸 비어져 눈에 아른거린다. 눈에 아른 거리는 그것에 신경을 쓰고 열어보고자 추궁하는 두 언니의 존재는, 상대방의 허물을 가슴에 품고 감추어주려 했던 마음과, 상대방의 허물이 눈에 아른거려 신경이 쓰이고 그것이 싫어 없애버리고만 싶은 마음의 갈등을 형상화한 것이다. 결국은 두 언니, 허물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승리하고, 신선비의 허물은 불태워진다. 말하자면 변화할 수 없는 신선비의 존재성이 부정되어 버린다. 상대방의 허물이 싫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승리, 그것은 상대방의 존재 그 자체를 온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남녀 결연의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끔찍하게 싫은 배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들 말한다. 그러다 보면 다른 이들에게 상대방의 그 허물을 홍보기도 하고, 감추어주기로 했던 허물을 들추어내는 일에 에너지를 쏟게 된다. 끝없이 욕망하는 것이 인간이기에, 남녀의 결연에 있어서도 배우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되기를 끝없이 욕망하게 되는 것일 수 있다. 그러한 중에 처음 간과했던 상대방의 면모들이 새삼스레 눈에 띄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의 모습들이 눈에 거슬러, 결국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끔찍하게 싫어지기도 한다. 결국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결연은 유지될 수 없다. 신선비가 자신의 허물이 소실되었음을 인지하고 그대로 색시를 떠났던 것처럼, 상대방이 더 이상 자신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에 주목하던 상대방이 이제는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낱알이 드러내어 불태워 없애버리고자 할 때,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이들은 그 결연을 유지하고자 하여도 유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 '허물'의 상징

허물(변화할 수 없는 부정적 존재성) - 대립
 [거부 - 두 언니 - 목격 - 승리 → 허물 소실 → 결연의 파국
 | 인정 - 셋째 딸 - 숨김 - 패배

색시에게 허물을 맡기고 금기를 부여하는 신선비의 모습은, 현실의 남녀 결연에 있어서 것처럼 핵심적인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배우자의 허물을 가슴에 품고 감추어줄 수 있는가의 여부를 묻는 것, 그에 대한 답은 궁극적으로 남녀 간의 결연을 유지하고 발전시켜갈 것인지 파국을 맞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중요한 금기를 어기게 된 색시는, 신선비를 되찾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몸소 겪어내야만 했던 것이다.

3.3. '회복(시련 → 2차 결연)' : 진정한 안목의 발현

금기를 위반한 색시에게는 전통적인 서사문법에 따라 금기 위반에 의한 시련이 부과된다. 그리고 그러한 시련의 극복을 통해 색시는 신선비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그렇다면 '파국(금기 위반)'에 뒤이은 '회복(시련→2차 결연)'의 순차에는 앞서 이루어진 중대한 과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는 서사를 살펴봄으로써 배우자의 허물에 대한 거부로 파국에 다다른 결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떠나버린 신선비를 찾아나선 색시는 각편에 따라 다양한 시련에 직면하여 그것을 극복해나간다. 신선비를 찾아다니는 여정의 과정에서도 '빨래하기', '밭 갈기' 등의 다양한 시련들이 주어지고 각각의 시련들이 나름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시련은 '새색시와의 경쟁'

이며, 결연의 금기를 어긴 색시가 다시 결연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 의미가 가장 응축되어 나타난 것도 새색시와의 경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색시와 새색시의 경쟁 내용을 중심으로 그 상징과 의미를 분석하고, 색시의 어떠한 노력이 신선비와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 ‘회복(시련 → 2차 결연) 과정에 배치된 대립구조

색시 : 새색시

경쟁의 내용은 주로 ‘물 걷기’, ‘호랑이 눈썹 뽑아 오기’로 제시된다. 이중 물 걷는 경쟁은 얼음판을 지나 물을 길어오되 흘리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험 그 자체로는 ‘조심성’을 시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결연의 문제로 이해할 때는 상대방을 대함에 있어서의 조심성, 함부로 허물을 들추어내는 일에 대한 경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색시는 물 걷기에서 승리함으로써 상대방을 대함에 있어 조심성을 기하게 되었음을 입증하게 된 맥락이다. 경쟁의 주제 자체는 그러하거니와, 한 가지 더 주목되는 점은 색시와 새색시가 물 걷기에 사용한 도구의 차이이다.

색시는 ‘나막신’을 신고 얼음판을 지난다. 얼음판 위를 나막신을 신고 건너야 하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발밑에 온 신경을 기하였고 그것이 오히려 넘어지지 않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징신’⁴⁰⁾을 신어 미끄러지지 않으리라 생각한 새색시는 오히려 마음을 놓았다가 미끄러지게 된다. 상대방과의 결연이 오래 지속되어 안정적이라 생각할수록 방만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 모습임을 생각하면, 이는 징신을 신고 얼음판을 건너는 새색시의 모습과

40) 나막신과 징신은 둘 다 비 오는 날에 신는 특수용도의 신발이다. 그러나 나막신은 신발 바닥의 높이를 높여 진땅에 발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서 신었을 때 안정적으로 보행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반면, 징신은 가죽으로 된 신발 바닥에 쇠로 된 징을 박아놓아 진땅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서 신었을 때 보행의 안정성이 매우 높다.

같다. 조심성이 없어질수록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일이 잦아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에 물 걷기 경쟁에서 색시가 보여주는 모습은 관계가 깊어짐에 안도하지 않고 얼음판을 나막신을 신고 걸듯이 조심스러워야 함을 이야기하는 상징이리라 본다.

또 색시는 투박한 질항아리를 이고 가 물을 걷지만 새색시는 보기 좋은 못항아리를 이고 가 물을 걷는다. 이때 색시가 인 질항아리는 손에서 미끌어지지 않아 무사히 물을 걸어들 수 있었으나 새색시는 미끄러운 못항아리로 인해 오히려 패하고 만다. 이는 겉보기 보다는 실제적인 쓰임, '내용'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구렁이인 신선비의 표면적 모습에 주목하지 않고, 이면의 존재적 가능성에 주목했던 애초의 마음, 색시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질항아리와 못항아리의 형상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결연 대상의 부정적인 모습이 눈에 거슬릴수록, 애초에 상대방에게서 보았던 가치로운 면모들을 잊어가기 쉽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허물이 눈에 떨어질수록 처음의 마음을 돌아보고, 애초에 자신이 발견했던 상대방의 긍정적인 모습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호랑이 눈썹 뽑아 오기'와도 일맥상통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색시가 호랑이 눈썹을 얻을 수 있었던 맥락에 대해, '이미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보기도 한다. 한국 설화의 전통에서 '호랑이 눈썹'이 대상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으로 통용되는 맥락에 따라, 구렁이인 신선비의 진면목을 알아보았던 색시에게 이미 호랑이 눈썹의 공능에 해당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시각이다.⁴¹⁾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을 왜 얻어야 했는가. 그러한 의문으로 호랑이 눈썹 뽑아 오기 경쟁을 살펴보면 다른 맥락의 의미가 보인다.

색시가 호랑이 눈썹을 뽑아 온 반면, 새색시가 뽑아 온 것은 호랑이 눈썹처럼 보이는 가짜였다.⁴²⁾ 진짜와 가짜의 경쟁, 이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호

41) 신동훈, 앞의 책, 216쪽.

랑이 눈썹 뽑기가 신선비를 되찾는 경쟁에 꼭 필요했다면, 모두가 극찬해마지 않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그녀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맞는다. 혹시 그러한 능력을 지닌 척 했던 것은 아닌가. 고양이 눈썹을 손에 든 새색시처럼, 색시가 가지고 있었다는 호랑이 눈썹은 사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가짜, 고양이가 눈썹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면 경쟁의 대상인 새색시는, 과거의 색시 그 자신에 대한 상징이 된다. 가짜 호랑이 눈썹을 들고 구렁이인 신선비를 바라보며 그의 본질을 보는 듯 행동했으나, 실상은 자신의 안목을 확신할 수 없었던 과거의 색시, 정신을 신은 듯 관계가 안정되자 대상의 표면적 모습에 신경을 쓰는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 과거의 색시, 경쟁자인 새색시의 형상은 오히려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할 과거의 그녀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호랑이 눈썹을 손에 쥔 색시, 진정으로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 색시는 과거의 과오를 갚음하고 신선비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색시와 혼인을 앞두고 있는 신선비의 상황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허물을 들추어내고 부정해버린 색시로 인해 신선비는 그녀를 떠나왔으나, 처음 자기 이면의 가치를 알아보고 호명해주었던 과거의 색시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에게 존재성을 부정당한 입장으로서 본인의 의지로 상대방과의 결연을 이어갈 수는 없지만, 다시 한 번 가짜 안목이라도 발휘하여 자신에게 손 내밀어 주기를 회구하는 마음, 그러한 부정적 배우자상과의 결합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과거의 색시와 혼인을 앞둔 신선비의 상황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러한 부정적 재결합의 모습은 흔히 발견된다. 과거의 추억을 잊지 못해서, 한번 파국을 맞았던 관계이므로 재결합 이후에는

42) 이본에 따라 소눈썹, 개눈썹, 개털, 까치털, 고양이 눈썹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이는 모두 호랑이 눈썹처럼 보이는 '가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파국의 이유가 되었던 상대방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재결합을 추구하는 경우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 다시 똑같은 이유로 더 큰 상처를 남긴 채 파국을 맞는 관계들, 막연한 향수에 의해 이루어진 재결합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 과거의 색시와 결연을 추구하고 있는 신선비의 모습이며, 가짜 안목을 지닌 과거의 색시와 진짜 안목을 얻게 될 현재의 색시의 경쟁도, 재결합의 과정에 꼭 필요한 확인의 과정으로서 배치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경쟁'의 상징

[새색시(- 과거) - 징신(- 방만함) - 노항아리(- 표면) - 고양이 눈썹(- 가짜 안목) - 패배 대립
 [색시(- 현재) - 나막신(- 조심성) - 질항아리(- 이면) - 호랑이 눈썹(- 진짜 안목) - 승리



결연의 회복

재결합한 신선비에게는 더 이상 허물이 없다. 그것은 그의 부정적 면모들이 모두 사라졌음을 뜻하지 않는다. 과거의 자신과 달리 진정으로 이면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된, 그리하여 자신이 보고 있는 신선비의 가치로운 이면에 확신을 갖게 된 색시가, 더 이상 신선비의 허물에 구애받지 않는 경지로 나아갔음을 의미한다. 이는 다름 아닌 우리의 결연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우리가 상대방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지니고 그 시선을 투사할 때에, 그리하여 더 이상 상대방의 허물에 시선이 머물지 않게 될 때에, 우리의 결연 대상도 그에 부응하여 진정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발현하게 될 것임을, 그러한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 상생적 남녀 결연의 완성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4. 남녀 결연의 의미에 비추어 본 보편적 ‘관계 맺음’의 원리

앞장의 논의를 통하여 <구렁덩덩신선비>에 나타난 남녀 결연의 양상과 원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신선비와 색시를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 고정시켜두지 않고, 시종일관 각각을 남녀 결연의 일방 당사자로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것은 남녀 결연에 있어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 짓기보다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남녀 결연의 원리를 재구하고자 한 의도이다.⁴³⁾

작품 해석에 가해진 ‘남녀 경계 허물기’에 대하여, 혹 <구렁덩덩신선비>에 나타난 가부장제 하의 여성 억압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분명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 전반에 억압받는 여성의 형상이 드리워져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남성’인 신선비에 의해 일방적인 금기가 부여되고 그로 인해 가혹한 남편 찾기의 과정을 홀로 감당해내는 새색시의 모습에서, 일방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강요받고 ‘제의에 가까운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받았던 가부장제사회의 여성 현실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⁴⁴⁾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 안팎에 가로놓인 억압받는 여성 형상은 결코 무마되고 희석되어서는 안 될 분명한 진실이

43) 결연의 문제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러한 생각 자체에 어느 정도 불평등한 젠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일 수 있음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차원에서 <구렁덩덩신선비>의 남녀 결연 원리를 구명하기 위하여, 분석의 과정에서는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 결연 당사자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44) 길태숙은 새색시의 남편찾기 과정을 제의적 맥락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남편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부인도 남편과 같이 다시 태어난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중략) 부인의 남편찾기의 여정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의례의 표현이다.”라고 논의한 바 있다(길태숙, 『<구렁덩덩신선비>, <세경본풀이>, <말매기노래>에 나타난 ‘남편찾기’와 ‘결합’의 의미』, 『열상고전연구』 제16집, 열상고전연구회, 2002, 286-287쪽). 이를 당대 현실의 상황으로 치환한다면 남성 권력에 의해 여성들에게 강요되었던 제의에 가까운 희생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 억압문제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남 : 너'의 엄정한 대립구도에 따라 서사 분석이 이루어져야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비설화는 오랜 시간 여러 전승자의 입을 경과하며 천차만별의 의미층위를 지니게 된다. 작품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가부장제 사회를 경유하며 여성 억압의 형상이 강하게 깃들게 되는 것도 구비설화 전반에 해당하는 경향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의미 맥락을 층층이 담고 있는 것이 구비설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양파를 잘라내는 곁에 따라 단면의 모양이 바뀌어도 그 모두가 양파이듯, <구렁덩덩신선비>라는 설화를 통해 '여성 억압'의 의미를 도출하든 '관계 맺음'의 의미를 구명하든 어느 한편을 틀렀다 말할 수 없는 일이다.⁴⁵⁾ 그러므로 본연구에서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관계 맺음의 원리'에 주안점을 두고 <구렁덩덩신선비>에 대해 논한다 하여, '가부장사회 당대의 여성 억압 문제'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도라 볼 수 없으며, 본연구가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⁴⁶⁾

오늘날 우리 현실의 남녀 결연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남성만의 역할과

45) 신동훈, 앞의 책, 208쪽.

46) <구렁덩덩신선비>는 분명 여성 억압의 형상을 짙게 담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주로 여성화자들에 의해 구연되었다는 점에서 여성들에게 강한 공감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구연자들은 색시가 일방적인 금기를 강요받거나 가혹한 시험을 요구받는 장면 등에서 매우 담담히 그 대목을 구연한다. 여성 구연자들의 공감에 '같은 처지의 여인에게 느끼는 동병상련' 이었다면 그 상황에 대하여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을 법함에도 그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구렁덩덩신선비> 서사의 심층에 깃든 원형이 구연자들의 불쾌감을 자극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에 대해 '가부장사회의 여성 역할이 내면화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법 하지만, 문학은, 특히나 구비문학은 구연자 무의식의 내면지도를 그대로 그려내면서도 강한 비판정신을 함유함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강요받는 역할이 약자의 것이었다면, 구연자들은 설화구연이라는 해방구를 통하여 의식적으로 억눌려온 무의식의 불만을 강하게 분출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색시의 처지에 대한 분노나 불쾌감을 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구연자들의 무의식이 그 외의 문제, 서사적 맥락을 구성하는 '남녀 결연', '관계 맺음'의 문제에 더 집중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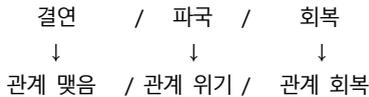
여성만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면 그것이 곧 불평등한 젠더 의식의 소산일 것이다. 오히려 연인이나 부부간의 ‘남-녀’ 관계도 ‘사람-사람’의 관계로 인식될 때에 성차로 인한 갈등이 극복되고 평등과 상생의 관계 맺음이 가능하리라 본다. 본고에서 ‘남녀 결연’의 문제를 보편적 ‘관계 맺음’의 문제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판단에 기반한 것이다.

또한 ‘남-녀’의 관계는 결코 ‘사람-사람’의 관계망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녀의 역할을 구분 짓지 않은 ‘남녀 결연’의 서사는 곧 ‘사람-사람’의 보편적 관계 맺음 원리를 들여다 볼 축도가 될 것이다. 이에 마지막으로,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에 나타난 남녀 결연의 원리에 비추어 보편적인 ‘관계 맺음’의 원리를 살펴봄으로써 본고의 논의를 갈무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정리하고 분석된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구조를, 다시 관계 맺음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관계 맺음’의 문제에 대한 서사구조

● 순차구조

탄생 → 1차 결연 → 금기위반 → 시련 → 2차 결연



● 핵심 대립구조

- 표면 : 이면
- 허물의 인정 : 허물의 거부
- 진짜 : 가짜

●서사구조

· 관계 맺음 = 대립
 [표면 - 구렁이 - 현상적 존재성 - 두 언니 - 혐오 - 패배] → 관계 맺음에 의한
 [이면 - 미남자 - 존재적 가능성 - 셋째 딸 - 긍정 - 승리] 존재적 가능성 발현(탈각)

· 관계 위기 = 대립
 [허물의 거부 - 두 언니 - 목격 - 혐오 - 승리] → 변화할 수 없는 존재성 부정(허물 소실)
 [허물의 인정 - 셋째 딸 - 숨김 - 인정 - 패배]

· 관계 회복 = 대립
 [가짜 - 색שי - 정신(방만함) - 낫향아리(표면) - 고양이 눈썹(가짜 안목) - 패배]
 [진짜 - 색שי - 나막신(조심성) - 질향아리(이면) - 호랑이 눈썹(진짜 안목) - 승리]

↓
진실한 안목을 획득하였음을 증명

구렁이의 모습이었던 신선비가 색שי와의 결연을 통하여 허물을 벗고 미남자로 변모하였듯, 우리는 다른 누군가와의 긍정적인 관계 맺음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적 가능성들을 발현할 수 있게 된다. 관계 맺음의 필요성, 그것이 신선비의 탈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리라 본다. 그런데 긍정적인 관계 맺음이란 생각보다 큰 장애를 딛고 이루어짐을 짐작할 수 있다.

결연 이전의 신선비가 구렁이의 모습으로 포착되었듯이, 우리는 낯선 누군가와 조우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서사의 문면에 나타난 대로 이성의 경우일 때도 그러하겠지만, 동성 간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우한 대상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그 자체로 그 대상에 대한 거부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낯선 대상과 조우한 인간의 내면에 불신·의혹·혐오·공포 등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 신선비의 구렁이 형상은 미지의 대상에 대한 인간 보편의 거부감을 반영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⁴⁷⁾

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의 홍수를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낯선 누군가와

47) 상징사진편찬위원회, 『상징사진』, 동아출판사, 1990, 326쪽.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색시가 구렁이의 이면에 존재하는 가능성을 목격하고 신선비로 호명하였듯이, 낯설고 불편한 대상의 이면에서 가치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상대방을 호명할 때이다. 낯선 사람들, 그래서 서로에게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들끼리 조우하여 서로에게서 가치로운 존재성을 발견하고 호명하였을 때, 우리는 그에 응답하여 첫날밤에 허물을 벗은 신선비처럼 각자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상대방이 주시하였던 이면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긍정적인 관계 맺음을 통한 존재적 가능성의 발현, 인간이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그러한 상생적 관계 맺음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맺는 어떠한 관계에서도 온전히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만을 보여줄 수 없는 것처럼, 상생적인 관계 맺음의 이후에도 각자의 ‘허물’은 남게 된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지만, 나로서는 도저히 변모시킬 수 없는 나의 존재성, 그에 대한 처리는 온전히 상대방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색시에게 허물을 내밀며 받아들이고 감추어주길 요청했던 신선비처럼, 자신이 변모시킬 수 없는 부분은 그저 상대방이 용납하고 가슴에 품어 감추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친밀한 대상일수록 더 잘 알게 되는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모들, 그것을 서로 용납하고 감싸 안을 때, 그 관계는 더욱 공고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슴 깊이 감추어둔 허물이 때때로 비어져 나와 눈에 떨 때마다 우리는 점점 그 허물이 신경 쓰이고 불편해진다. 눈에 아른거리는 상대방의 허물, ‘저것만 없다면 좋을텐데’ 하는 마음이 점점 우리를 지배한다. 더하여 관계가 친밀해지고 서로에게서 느끼는 안정감이 높아질수록 그 관계는 방만해지기 쉽다. 우리는 정신을 신고 걷는 새색시처럼 조심성이 없어지고, 친밀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일이 잦아진다. 그러다가 서로가 서로의 허물에 점점 더 주목하게 되고, 결국은 상대방의 허물만이 눈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는 애초에 상대방의 이면에서 발견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저 상대방의 허물이 불편하고 싫을 뿐, 신선비의 허물을 태워 버린 언니들처럼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게 된다.

허물은 변모할 수 없는 상대의 존재성이다. 상대의 허물을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관계 대상으로서의 상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허물을 거부하는 일은 곧 그 관계가 더 유지될 수 없게 하는 일, 관계의 금기를 위반하는 일이다. 관계 대상으로부터 허물을 거부당한 이는, 다시 말해 변모할 수 없는 자신의 존재성을 부정당한 이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여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과거 길을 가던 신선비가 자신의 허물이 타는 냄새를 맡자마자 발길을 돌려 색시를 떠난 것처럼 말이다.

허물을 부정당한 관계의 대상이 상대방과의 조우를 기피하며 거리를 두는 상황, 다시 만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만나주지 않는 상황이 저 멀리 다른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신선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계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어떻게든 그 앞으로 나아가 이전과는 달라진 자신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자신, 조심성이 없었던 자신을 뉘우치고, 상대방의 가치로운 면모보다 그 허물에 눈을 두었던 자신을 고백하고, 앞으로의 관계에서는 그리하지 않으리라 다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전의 자신이 손에 든 것은 고양이 눈썹이었을 뿐이며, 이제 자신은 그런 가짜가 아닌 진짜 안목, 호랑이 눈썹을 눈에 대고 상대방을 바라볼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저 상대방의 처분을 바랄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생긴 허물을, 다시 상대방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관계의 금기를 위반한, 크나큰 색시의 허물을 신선비가 다시 받아들였듯 말이다.

관계의 위기를 극복한 두 사람에게도 다시금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상대에게 맡긴 수많은 허물 중 하나가 다시 문제가 되어, 또다시 심각한 관계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상대와의 관계에 안심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새 들추어내서는 안 될 상대의 허물을 닦하며 금기의 선을 넘어서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허물을 대함에 있어서 언제나 나막신을 신고 얼음 위를 걷듯 조심성을 기해야만 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봄에 있어서 언제나 애초에 보았던 그의 가치로운 면모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관계 대상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발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서로가 맡긴 허물을 가슴에 품어 감추어주고, 서로가 바라보는 가치로운 면모를 발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관계, 그러한 상생의 관계 맺음 원리에 대하여 <구렁덩덩신선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에 내포된 남녀 결연의 원리, 나아가 보편적인 관계 맺음의 원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우리가 관계 대상에게서 가치로운 어떤 것, 존재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대상을 호명하였을 때, 상대는 그에 응답하여 허물을 벗듯이 우리가 발견하고 호명한 그 모습을 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관계 맺음이 이러하기에, 우리는 긍정적인 관계 맺음을 통하여 성숙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어떠한 관계대상도 부정적인 존재성, 허물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자기 면모, 허물의 존재는 그저 관계의 대상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감추어주고자 한다면 그 관계는 공고해져 더욱 더 상생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나, 그것을 들추어내고 부정하고자 한다면 그 관계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가치에 주목할 것, 상대방의 허물을 감추어줄 것, 이 두 가지야말로 <구렁덩덩신선비>에 내포된 관계 맺음의 큰

원리이다.

이와 같은 관계 맺음의 원리에 비추어 우리 현실의 관계 맺음을 생각해 보면 느끼게 되는 바 있다. 관계의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상대의 허물에서 그 원인을 찾는 일에 골몰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간의 우리 관계 맺음 방식이 크게 잘못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각자가 구렁이처럼 훗날 허물을 지니고 있음을, 내가 상대의 허물을 감당해야 하듯 상대도 나의 허물을 감당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서로의 허물은 덮어둔 채 그가 지닌 가치에 주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관계 맺음,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할 것임을 <구렁덩덩신선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 오수영 구연, <구령딩딩신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1-9, 200-205쪽.
- 권은순 구연, <구령딩딩신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1-9, 453-460쪽.
- 손양분 구연, <구령이를 낳은 할머니>, 『한국구비문학대계』 4-1, 357-360쪽.
- 박용애 구연, <구령딩딩소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4-5, 162-165쪽.
- 황필녀 구연, <구령딩딩소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4-5, 355-362쪽.
- 유조숙 구연, <구령딩딩신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4-6, 178-188쪽.
- 김계남 구연, <구령딩딩신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5-3, 466-473쪽.
- 고아지 구연, <구령딩딩신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5-4, 827-833쪽.
- 김학기 구연, <구령딩딩시선부>, 『한국구비문학대계』 5-5, 395-397쪽.
- 김판례 구연, <구령딩딩신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5-7, 174-182쪽.
- 조유란 구연, <뱀서방>, 『한국구비문학대계』 7-6, 578-588쪽.
- 안금옥 구연, <뱀 아들의 결혼>, 『한국구비문학대계』 7-10, 631-640쪽.
- 최순금 구연, <구령이 허물 벗은 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7-12, 140-144쪽.
- 이남이 구연, <뱀신랑>, 『한국구비문학대계』 8-5, 50-54쪽.
- 김태영 구연, <뱀 신랑과 열녀 부인>, 『한국구비문학대계』 8-7, 638-645쪽.
- 김순이 구연, <동동시선부>, 『한국구비문학대계』 8-9, 999-1006쪽.
- 김수영 구연, <구령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8-10, 597-606쪽.
- 우두남 구연, <구령딩딩신선비>, 『한국구비문학대계』 8-13, 558-564쪽.
- 이씨·라씨·이점례 구연, <구령딩딩시선비>,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7-전라북도I, 평민사, 1990, 289-293쪽.
- 곽의숙, 「<구령딩딩신선비>의 상징성 고찰」, 『국어국문학』 25, 문창어문학회, 1988, 223-234쪽.
- 길태숙, 「<구령딩딩신선비>, <세경본풀이>, <밭매기노래>에 나타난 ‘남편찾기’와 ‘결합’의 의미」, 『열상고전연구』 제16집, 열상고전연구회, 2002, 281-312쪽.
- 김정애, 「설화 <구령딩딩 신선비>를 통해 본 분단서사의 극복 가능성 탐색」, 『통일인문학논총』 제55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3, 27-53쪽.
- 김정은, 「금기를 통한 ‘신랑 되찾기’ 서사의 의미 고찰」, 『겨레어문학』 제47집,

- 겨레어문학회, 2011, 5-31쪽.
- 김용덕, 「금기설화의 구조와 상징적 의미」, 『한국언어문화』 36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147-174쪽.
- 김현선, 「<구렁덩덩신선비>와 서세랍 섬 <뱀남자>(Der Schlangenmann)의 비교 연구」, 『한국구비문학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경기대학교, 2012, 61-92쪽.
- 김환희, 「『구렁덩덩신선비』와 외국 뱀신랑설화의 서사구조와 상징성에 대한 비교문학적 고찰」, 『동화와 번역』 제4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2, 101-123쪽.
- 노영근, 「『구렁덩덩신선비』 형 민담고」, 『국민어문연구』 8, 국민대학교국어국문학연구회, 2000, 23-66쪽.
- 브루노 베텔하임, 『옛이야기의 매력』 1-2, 김옥순·주옥 역, 시공사, 1998.
- 블라디미르 프로프, 『민담형태론』, 유영대 옮김, 새문사, 2000.
- 상징사전편찬위원회, 『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0.
- 서대석, 「『구렁덩덩 신선비』의 신화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3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6, 172-227쪽.
- 서은아, 「<구렁덩덩신선비>를 이용한 부부상담의 가능성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학과교육학회, 2006, 181-212쪽.
- 신동훈, 「설화의 금기 화소에 담긴 세계인식의 층위」, 『비교민속학』 제33집, 비교민속학회, 2007, 417-446쪽.
- 신동훈, 『삶을 일깨우는 옛이야기의 힘』, 우리교육, 2012.
- 신연우,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의 상징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121-150쪽.
- 신해진, 「<구렁덩덩신선비의 상징성 - 여성의식세계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7, 민속학회, 1995, 209-211쪽.
- 이기대, 「<구렁덩덩신선비>의 심리적 고찰」, 『한국문학과 심리주의』, 우리어문학회, 2000, 311-341쪽.
-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1993.
- 이정훈, 「구렁덩덩신선비 이야기의 일상적 영웅성 : ‘허물(벗기)’과 관계성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57집, 국어문화회, 2014, 83-107쪽.
- 임석재, 「구렁덩덩 신선비 설화와 큐피드 싸이키 설화와의 대비」, 『한국·일본 설화의 연구』, 인하대학교출판부, 1987, 32-36쪽.
-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47-278쪽.

정운채,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방법론의 밑그림」, 『고전문학과 교육』 제8집, 한국고전문학과교육학회, 2004, 159-176쪽.

조은상, 「<구렁덩덩신선비>의 각편유형과 자기서사와의 관련 양상」, 『겨레어문학』 46, 겨레어문학회, 2001, 291-317쪽.

조희숙, 「동물신랑/신부 모티프를 지닌 한국 전래동화와 인디언 동화와의 비교 연구: 공간구조와 변신유형의 발달심리학적 의미」, 『유아교육연구』 제23권 4호, 한국유아교육학회, 2003, 49-80쪽.

최래옥, 「설화 구술상의 제문제에 대한 고찰 - 蛇郎譚 구렁덩덩신선비의 채록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4권 1호, 한국민속학회, 1971, 67-92쪽.

J. C. 쿠퍼, 『세계문화상징사전』, 이윤기 옮김, 까치, 1994.

N. Gregory Hamilton,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김진숙 외 옮김, 학지사, 2007.

J. E. Cirlot, A Dictionary of Symbols,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62.

R. A. Spitz, The First Year of Life : A Psychoanalytic Study of Normal and Deviant Development of Object Relation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65.

* 이 논문은 2016년 11월 3일 투고되어 12월 12일 심사 완료하고 12월 23일 게재 확정함.

<Abstract>

The Issue of 'Relationship-Building' Seen through
the Narration of the Tale,
<Goorungdungdungshinsunbee>

Cho, Hongyoun (Kongkuk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reveal the significance of a tale about the principle of two-layered relationship-building in the narration of the tale, <Goorungdungdungshinsunbee>. The two-layered relationship-building here refers to, first, building of a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a woman as it is shown in the surface of the tale, and second, expanding the significance of the relationship-building 'between a man and a woman' into the issue of relationship-building 'between people'. Such a discussion came from the idea that forming a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a woman in <Goorungdungdungshinsunbee> is ultimately not very different from building a relationship in general dimension. So this study understood the overall narration as 'relationship-building(birth→the first relationship-building)/ collapse(violation of taboo)/ recovery(hardship→the second-building), found core conflict composition in each phase, used symbolic analysis about the shapes that that create conflicts and events, and tried to actively interpret the meaning. Also, to re-illustrate such result of discussion as an issue of general relationship-building, this study re-established the sequential structure of 'relationship-building→crisis in relationship→recovery of relationship' and conducted an analysis.

The principle of relationship-building that was revealed in the result of the discussion is two-fold. First, when we discover something valuable, the existential possibility in the object of relationship and name it, the other person responds to it and naturally discovers the form that we found and named. As such is our relationship-building, we can achieve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 positive relationship-building. Second, any object of relationship is supposed to have negative existence, a fault. The existence of the aspect of oneself that one can never change for oneself, a fault, should be left on the hands of the object of relationship. If you acknowledge, accept, and conceal it, the relationship will be strengthened and have more mutually beneficial power, but if you reveal and deny it, the relationship has no other way but to encounter crisis. Paying attention to the value of the other and reveal the fault of the other, these two are the big principles that can be found in <Goorungdungdungshinsunbee>.

Key words: relationship-building between a man and a woman, building a relationship, shinsunbee, the third daughter, eyebrows' of a tiger, breakaway, fault, searching for a husband, discerning eye, surface, the hidden side